

#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자의 죽음

## 터치 코리아



### 봉달호

편의점주·에세이스트

결국 사람이 죽었다. 지난달 8일,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현금을 노린 강도의 흉기에 찔렸다. 피를 쏟으며 쓰러진 점주는 1시간 후 발견됐지만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가 편의점 안에서 사투를 벌일 때, 내부를 불투명하게 가린 시트지 때문에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개방형 병창고에 있어 겨울철 편의점 내부는 유난히 춥다. 기본 숨을 몰아쉬고 차가운 바닥을 굽으면서 마음으로만 애타게 구소 신호를 보냈을 그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른다.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

정확히 1년 전 이 지면에서 편의점 시트지 규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편의점 유리창에 어두운 시트지를 붙이도록 만든 행정 규제는 분명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고 경고했다. 인적이 드문 심야에 영업하는 편의점 창문을 어둡게 만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 아닌가. 그럼에도 규제는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사람이 죽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 자기들은 시

트지를 붙이라고 명령한 적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저 내부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공문서 근거까지 제시하며 변명할 것이다. 무슨 언어도단인가. 법률을 자구(字句)로만 해석하는 이 로봇 같은 답답함에 대해서도 1년 전 칼럼에서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사람이 죽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를 치우면 되지 않느냐. 점주들이 돈 때문에 그런다”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옳다. 광고판만 치우면 될 것을, 우리는 고작(!) 몇 십만 원 푼돈에 눈먼 수전노가 되어

**“담배 광고 안보여야” 규제에 유리창 어둡게 해야하는 편의점 결국 심야에 사망 범죄 일어나 이런 죽음엔 관심 없는 정치권**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맡기며 오늘도 편의점 계산대 안에 몸을 웅크린다. 우리나라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행태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는다. 규제를 만든 공무원들은 편의점 점주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법전과 규정을 내밀면서 자신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따름이라고 요지부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엉뚱한 짓을 그만두라” 격노하면 관계

부처는 납작 엎드리며 시행령을 만들 것이고, 전국 편의점에서 불투명 시트지는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사람이 죽었다. 우리나라의 다른 고질병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헬러윈 참석에는 관계 장관 탄핵까지 밀어붙인 ‘생명 존중’의 거대 야당은 이런 문제에는 입을 다물 것이다. 당대표는 방탄으로 지켜도 한낱 서민 목숨은 필요에 따라 지킬 것이다. 전국에 편의점은 5만곳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시트지로 위협을 느끼는 편의점은 일부이며, 그들은 ‘표’가 되지 않으니 정치권은 관심 없을 것이다. 아차.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고질병은 무슨 일만 벌어지면 어느 정부 시절에 만든 ‘적폐’ 나를 따지면서 ‘네 탓’이라 공박하는 습관인데, 시트지 규제의 단초는 2018년에 마련되었다. 자, 싸우시라.

심야 안전에 취약한 업소이니 안이 훤히 보이도록 조차해도 부족할 판에 정반대로 질주한 시트지 규제는 K 탁상 행정의 역사적 사례로 남을 만하다. 기본적 양심과 판단 능력만 갖춰어도 강행할 수 없는 제도다. 결국 사람을 죽였다. 오늘도 편의점 근무자들은 야구방망이나 손도끼를 호신 수단으로 삼아 옆에 두고 일하면서 밤벌이의 서러움을 한탄할 따름이다. 고인의 영전에 마음으로 소주 한잔 올리며 명복을 빈다. 분향소도 없는 죽음이다. 그의 비명에 나의 책임 또한 있는 것 같아 미안하고 슬프다.

## 항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11] 레시피를 찢어버려

### Start rippin' up the recipe

“맨해튼 범죄율이 매년 18%씩 오르는 거 알아?(Do you realize Manhattan crime statistics have seen a year-on-year increase of over 18%?)” 이직하는 아빠를 따라 맨해튼으로 이사 온 조시는 이삿짐을 내리기 전부터 입이 나와 있다. 가깝거나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데 아랫집 이웃 그림프스는 새 이웃에게 주민 규율을 들이밀며 뒷세까지 부린다. 아빠를 쳐다보며 한숨 쉬는 조시. “사람들은 애가 있으면 여기서 탈출하지, 들어오진 않아. (Most people move out of the city when they have kids, not into it.)” 영화 ‘라일 라일 크로커다일(Lyle, Lyle, Crocodile·2023·사진)’의 한 장면이다.

새집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릴 듣고 올라간 조시(윈즐로 페글리 분)는 ‘라일’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악어를 만나게 된다. 조시는 보자마자 기겁하지만 라일이 사람처럼 노래하는 운운한 악어인 걸 알게 되고 둘은 순식간에 절친한 친구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에게 라일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조시의 새엄마 프림 부인은 불쑥 커버린 조시에게 새삼 거리감을 느끼지만 꼼꼼하게 집착적으로 건강식을 준비해주는 것 말고는 가까워질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라일과 우연히 마주치고 놀라 도망치려는 순간, 라일은 노래를 부르며 해질 의도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때 라일이 부른 노래는 정답이라고 믿던 것만을 고집하던 프림 부인의 생각을 바꿔놓는다. “레시피를 찢어버리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 노래에 몸을 맡기면 옳고 그름은 저 멀리. (Start rippin' up the recipe. Let go of how it has to be. You forget about right and wrong, when you lose yourself in the song.)” 영화 번역가

## 社 說

### 마침내 시작된 이재명 재판, 대형 의혹의 진실 다 밝혀져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 시작된 지 1년여 만의 출석이다. 첫 재판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받다 극단 선택을 하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차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씨를 몇 차례 만났더라도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를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김씨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김씨와 대장동 사건의 총책임자인 이 대표는 어떤 관계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대표 말대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김씨가 대체 왜 극단 선택까지 했느냐는 것은 상식적 의문이다. 이 대표는 나중에 김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갔고, 골프까지 한 사실이 나오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선 성남시장 시절 김씨에게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관계인데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크게 다르다.

지금까지 이 대표의 ‘모른다’는 해명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그 해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쌍방울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압송되자 “누군가 술먹

다가 (김 전 회장) 전화를 바꿔줬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빠져나갈 여지를 만드는 발언이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에 보냈다는 진술도 했다. 쌍방울 직원 수십 명이 동원해 북에 돈을 보냈다. 내복 하나 사 입은 인연밖에 없는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이전에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한소소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그런데 또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사회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정치인의 거짓말은 흔하지만 이 대표는 너무 많은 사건에서 너무 많은 거짓말 의혹을 받고 있다.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이 대표 말의 진위가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닌 이유다. 이 대표 의혹이 시작된 이후 직간접 관련자가 사망한 사례가 3건에 달한다. 이 사건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앞으로 이 대표 재판은 분류인 대장동 사건과 백현·위례 사건, 성남FC 사건 등으로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체포 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그때마다 정치가 요동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내내 끌려다녀야 되고 국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개인의 의혹이 일파만파를 만들고 있다.



동영상 사설

### 방탄 국회 열리자마자 외유 나간 민주당 의원들

3·1절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놓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해외로 나갔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산적인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휴일 개최를 강행했다. 하지만 1일 국회는 종일 비어 있었다.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23·30일로 잡혀 있다. 그사이 의원 30여 명이 해외로 나간 것이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2일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모임 대표 강훈식 의원은 “당의 진로,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비로 간다”고 했다.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회를 열어 놓고 왜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를 논의하나, 그것도 베트남까지 가서 해야 하나. 같은 계파끼리 친목 도모를 위한 외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정래 위원장과 고민정·조승래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석하며 출장 중이다. 이동통신 분야 주요 전시회여서 참관해야 한다고 하지만 같은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지 않았다. 민주당 안민석·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3·1절을 맞아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8일부터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순방을 떠난다고 한다. 이렇듯 거러면 왜 국회를 열었나.

민주당 지도부가 굳이 3·1절부터 국회를 연 것은 이 대표 방탄에 단 하루의 빈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단 하루도 국회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1월에도 굳이 열 필요가 없었던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때도 국회를 닫으면 민생이 파탄 날 것처럼 하더니 소속 의원 20여 명이 무더기로 외유를 나갔다. 이제는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들어도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민생을 위해서’라는 거짓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자유·시장 신봉한다는 정부의 민간 기업 개입이 너무 노골적

KT 이사회가 전·현직 KT 임원 4명을 차기 CEO 후보로 압축해 최종 선정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인선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며 KT 이사회를 비판했다. 애초 KT는 구현모 현 대표 연임을 결정했지만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구 대표가 자진 하차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목적은 구 대표 배제만이 아니라 특정인을 차기 대표로 만들려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최종 4명에 들지 않자 대표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주 보던 일이 새 정부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지적대로 KT를 비롯한 민영화된 공기업과 금융 지주회사가 지배 주주가 없는 것을 이용해 최고경영자가 자기 사

람들로 이사회를 만들고 ‘셀프 연임’을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사회가 ‘거수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배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KT 사안은 ‘지배 구조 개선’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특정인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 대표가 사퇴한 뒤 재공모 절차는 공개 경쟁으로 했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도 절차에 하자 없다. 대통령실이 계속 제동을 거는 이유가 달리 있기 어렵다. 2002년 민영화된 KT엔 정부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다. 자유시장 원리를 신봉한다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개입하는 양태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놀라울 정도다.

# 윤대통령 "일본은 파트너"... 21세기 수구·쇄국주의와 싸우겠다는 선언



개항 회칙(平和)  
개화파 vs 수구파  
이승만 회 김일성 박헌영  
한미동맹 vs 6.25(스탈린 + 모택동 + 김일성 + 박헌영)  
박정희의 개방적 근대화 회 김일성의 우리민족끼리  
지구화(globalization) vs 민족주의  
한·미·일 협력 회 21세기 수구파(중·친중 + 중·친북 + 친러)  
자유진영 vs 전체주의진영(반미·반일 + 안미경중 + 중국동)

###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 말을 두고 한국에서는 치열한 이념적 대결이 격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전략목표와는 정반대되는 목표를 추구했다. 반미·반일·친북·친중 외교가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렇다면, 한 마디로 무엇인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이 2022년 2월에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S.)이란 문건이 천명한, 미국의 21세기 군사외교 전략목표에 그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 문재인의 반미·반일·친북·친중 외교

미국 백악관 문서는 서두에서 미국이 의미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동북아·동남아·남아시아·오세아니아·태평양 도서(島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현대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들이 21세기 도전에 능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역내(域內) 기구들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문서는 10개의 액션플랜(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구성하는 등, 이 지역에서 경제 번영과 군사적 역지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북한 핵 압박 뒤엔 中共 다중공이 더 위협하고 영구적 위협 실체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

그중에서도, 한국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도전들은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對韓) 북한 안보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개발, 첨단 기술,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한국의 진로는 한반도 정치로 국한해서 바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걸 새삼 확인했다.

### 이제 진짜 백년전쟁

이것은 조선왕조 말의 [치화(治和) vs 개항] 논란, [수구파 vs 개화파] 싸움의 연장선에 있는 논쟁이다. 이 논쟁은 훗날, [민족주의 vs 지구화(globalization)] 충돌로 연장되었다.

이 충돌은 8.15 해방 공간에선 [이승만 박사와 김일성 박헌영의 대결]로 되살아났다. 이 대결은 [김일성 박헌영의 6.25 남침]으로 이어졌다. 이 도발을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동맹]으로 이겨냈다.

1960년대 초~1970년대 말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방적 근대화]나, 김일성의 [우리민족끼리]냐로 표출되었다.

결과는 한국경제의 세계 10위권 진입, 북한의 세계 최빈국 전략이었다. 경제뿐 아니라, 자유로운 삶의 양식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선택이었다.

### 21세기 수구파 재집권, 아슬아슬하게 막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도 NL 운동권은 신판 총명사대(聰明事大)라 할 [중국동 참여]와 [반미·반일]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와 자유 진영은 3.9 대선에서 그들 [21세기 수구파]를, 근소한 차이로나마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발언은 이 해묵은 대결을 또 다른 국면으로 가져갈 것이다.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외교적 논란은 앞으로도 관성(慣性)의 법칙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자유와 번영이 보장될 것인가의 선택은, 그것대로 별개의 차선을 달릴 것이다. 달려야 한다.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교수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3월 2일 게재 되었습니다.

